

기윤실 청년센터 WAY 포럼

WAY가 만난 청년들의 재정건강 마음건강

2022. 03. 24(목) 19:30

높은뜻광성교회 홀씨교육관 / 유튜브 생중계

2020년 여름부터 지난 2년간 청년들의 재정건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활동했던 기윤실 청년센터WAY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센터WAY'와 '청년들이 만난 생생한 이야기와,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재정건강과 마음건강에 관심있는 분들과 교회, 청년공동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질문 bit.ly/way포럼

일정	19:30-19:35	인사말, 포럼 소개 (조성돈 센터장)
	19:35-19:50	청년센터WAY 소개 및 현황, 참가청년 인터뷰 영상
	19:50-20:10	상담사가 보는 요즘 청년들의 재정/마음건강 (김서로 팀장/김성경 공동소장)
	20:10-20:20	교회 청년부와 청년센터WAY가 함께하는 청년사역(이재호 목사)
	20:20-20:30	질의응답
	20:30-20:40	높은뜻광성교회, 청년상담센터 위드 협약식
	20:40-20:50	광고, 마무리

문의 02-794-6200 cemk@hanmail.net @giyunsil @cemk_way



청년센터 WAY 소개 및 현황

기윤실 청년센터 WAY 최주리 간사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누구'를 찾기 어려울때 참 힘들고 공허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한 평의 비빌언덕이 되고자 저희 기윤실 청년센터 WAY 가 세워졌는데요. 코로나 19 의 확산세가 점점 심각해지던 2020 년 4 월, 기윤실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세우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연구와 논의로 청년센터 설립을 준비하면서, 4 월과 5 월에는 코로나 19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당시 코로나 19 의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 청년의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했는데요. 120 명의 청년들에게 3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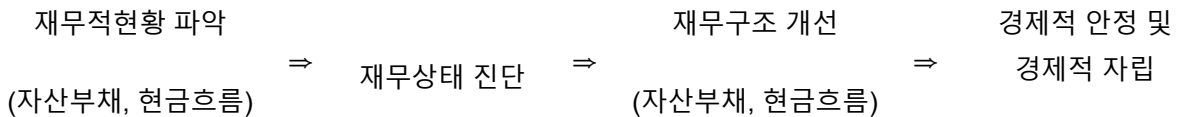
이후 6 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연구한 결과, 생활자립지원, 마음건강지원, 경험역량지원의 세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센터 WAY 가, 7 월 17 일 이 자리에서 진행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청년센터 WAY 는 현재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센터 WAY : 센터장, 운영위원, 행정간사
생활자립지원 청년재무상담소 : 팀장, 상담사
마음건강지원 청년상담센터 위드 : 공동소장, 운영위원, 상담사
경험역량지원 사람책방 (* 청년운동본부의 '잇슈온'으로 이전)

○ 청년재무상담소

- ① 대상 : 재정관리에 조연과 도움이 필요한 만 19~39 세 청년
- ② 기간 : 2020 년 6~12 월 / 2021 년 3~10 월
- ③ 재무상담



1 차 상담	청년의 자산부채 및 현금흐름, 관계성 등 재무적 현황을 파악하여 재무상태 진단
2 차 상담	내담자의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현금흐름 등 개선방안을 의논하고 예산을 세워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차 상담	내담자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내담자에 맞는 예산 확정하는 등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내담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위로 및 격려

○ 청년상담센터 워드

- ① 기간 : 2020 년 하반기(7~11 월) / 2021 년 상반기(4~5 월), 하반기(10~11 월)
- ② 상담시간 : 주 1 회, 회기당 50 분
- ③ 상담대상 및 비용 :
 - 학생, 무직, 4 대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파트타임, 3 년 이내 사회초년생 등의 만 19~39 세 청년
⇒ 80%(회기당 4 만원) 지원, 기본 7 회기 7 만원(회기당 1 만원 부담)
 - 그 외의 만 19~39 세 청년
⇒ 20%(회기당 1 만원) 지원, 기본 7 회기 28 만원(회기당 4 만원 부담)
- ④ 워드클래스
 - 컬러로 나를 만나다_컬러성격유형검사(2020 년 11 월 27 일)
 - 나를 비추는 거울, 육구로 내 모습 들여다보기(2021 년 2 월 18 일)
 - 가족과의 응어리진 감정을 놓아주는 법(2021 년 5 월 15 일)
 - 참가기를 찾는 독서모임 (2021 년 7 월 24 일~8 월 28 일)

○ 참가청년 통계

	인원	연령	성별	신청경로
청년재무상담소	71 명	20-24 세 10 명 25-29 세 22 명 30-34 세 29 명 35 세- 17 명	남 23 명 여 48 명	지인소개 49 회 뉴스레터 24 회 언론매체 6 회 SNS 15 회
청년상담센터 워드	92 명	20-24 세 10 명 25-29 세 24 명 30-34 세 36 명 35 세- 22 명	남 24 명 여 68 명	지인소개 78 회 뉴스레터 4 회 언론매체 10 회 SNS 10 회

○ 만족도조사 (5.0 점 만점)

① 청년재무상담소

2020 년	2021 년	기타의견
4.7 점	4.5 점	“기독교단체에서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신뢰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익명) “단순히 재무상담에 국한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돈의 쓰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김**) “복잡한 마음이 한결 정리가 되고 하루하루 살기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살려는 마음가짐이 되었다.”(익명)

② 청년상담센터 워드

2020 년	2021 년	기타의견
4.7 점	4.7 점	“상담이 특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원을 받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익명)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조**)

또한 신청기간이 아님에도 관련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재무상담소에서는 무료로, 청년상담센터 워드에서는 회기당 80% 혹은 20%의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수록 의지할 수 있는 곳이나 다양한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재정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전문적인 도움을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현장에서도 그 필요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웨이는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딛고 청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모금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여러 방식으로 저희와 함께 청년들을 도울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청년재무상담소와 청년상담센터 워드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주변에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많이 전해주시고 참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가 보는 요즘 청년들의 재정건강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소 김서로 팀장

1. 청년의 삶의 과제

마가복음 10 장 6-8 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식 주례사에 많이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청년들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에 관심이 많겠지만 미혼 청년들에게는 “부모를 떠나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의 과제는 바로 부모를 떠나는 “홀로서기”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요즘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

그러나 “홀로서기”를 위해 발버둥 치는 요즘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현실은 아마도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정’이라는 말은 청년들에게는 ‘생존’과 같은 단어로 들릴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 현실은 “높은 주거비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을 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전세자금, 월세 등을 감당하고 나면 그만큼 저축할 돈이 줄어듭니다. 저축할 돈이 적다는 것은 청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홀로서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충분히 있다면 “홀로서기”를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없는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이 있는 청년들과 비교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것도 모자라 이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픈 부모가 있다든지, 부모가 청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갚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홀로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멀어짐이라고 생각해 볼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홀로서기”의 방해요소이기도 합니다.

3. 재정건강과 마음건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즉 재정건강이 악화되면 마음건강도 같이 악화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나 자신을, 또는 나의 경제적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라나게 됩니다.

부채가 많은 청년들은 신용카드값,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 자신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돈을 적게 버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돈관리가 되지 않는 청년들은 자신이 사치스럽고 돈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경제적 현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청년들은 주식, 코인 등에 의지하며 인생역전을 기대합니다.

반대로 마음건강이 좋지 않으면 재정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극적 소비활동을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생활에 필요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과하게 먹기도 합니다.

4. 청년 재무상담소의 역할

청년 재무상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이라는 도구로 용기있는 삶을 위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 재무상담은 가장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 즉 현금흐름의 상태, 그리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과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부채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은 주저합니다. 자신의 치부, 경제적 벌거벗음을 상담사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상담사는 청년들에게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청년 재무상담에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숫자보다는 관계성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예산과 저축계획을 세웁니다. 행복한 현재의 삶과 실행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했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재무상담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검합니다. 계획을 잘 실행했다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잘 실행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 함께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5. 마무리

청년 재무상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서기”의 두려움과 불안에 둘러싸인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이라는 도구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청년들이 재정건강의 문제로 마음건강의 악화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사가 보는 요즘 청년들의 마음건강

기윤실 청년상담센터 위드 김성경 공동소장

1. 위드 상담사의 눈으로 본 청년의 삶

청년이 이슈가 된 사회이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현실에서 만나본 청년들은, 실제로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청년' 하면, 이것저것 꿈꾸고 시도해보며 실수도 하는 나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실수, 실패하면 안된다고 여기는 느낌이다. 실수하면 안된다는 느낌은 불안과 조급함을 낳고 작은 일에도 예민(과민)해져 과한 감정적 소모를 일으킨다. 직장을 선택해도 미래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면에서 또 불안해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이다. 그러나 또 한편 상담을 받겠다고 자원하고, 상담받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고, 받은 이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받는 것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양지로 드러내고 있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애씀은 전라, 경상, 이천 등등 각 지역에서도 상담신청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시작된 좀 세상이 먼 길을 연결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 성장하려는 몸부림과 노력을 보며 청년에게서 희망을 보게 된다.

2. 위드 청년들의 가장 큰 호소문제

청년기는 뜻을 세우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발달단계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 혼란이 더 가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체성은 결국 자존감과 관계문제로 두드러졌고, 이것은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정체성과 자존감 및 관계문제는 그 요인으로 두드러진 것이 비교가 절로 되는 사회환경이라는 것이었다. 누가 무엇을 입고, 먹고, 놀고, 취업하고 성취하고 인정받는지 sns 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자신과 비교하며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다. 나만 이상한가 나만 못하나 나만 늦은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나아가 긴장되고 초조해 했다.

또 하나는, 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족관계속에서 친밀감과 소통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상담으로 많이 연결되는 30대 청년의 경우 부모가 imf 위기를 겪으며 가정에서 힘들었던 기억과 부모 갈등 및 이혼의 경험이 생각보다 많았다. 부모님의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갈등으로 인해 관계나 정서 쪽 보다는 능력이나 일의 성취에 올인하다보니 정서적 교류는 약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가족내 친밀감과 소통의 부족은 사회 속 관계갈등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좋은 경험이 좋은 행동과 말로 나오는데 본 것이 없으니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엉뚱한 방향이다보니 결과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고, 시도하지 않거나 실패하면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때로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게임, 성, 술 등이었다. 그리고 나면 신앙이 있다보니 스스로에 대해 또 실망,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안에서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였다.

3. 청년들에게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1) 변화가 쉬운 나이 : 청년을 상담하다 보면 나이가 있는 분에 비해 감정과 고통에 대한 대처법이 굳지 않아서 변화가 쉽다는 것을 느낀다. 몇 번의 상담으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기도 한다. 20 대 후반 여자청년의 경우, 태어난 것이 싫었으며,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안과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듣고 싶었던 격려의 말을 들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는데 '잘 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렸고 두 세달 만에 잘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고 그에 맞게 성취의 경험을 하다보니 화장을 안하고 민낯으로 외출도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더 나이들기 전에 마음과 상처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와 만남 혹은 결혼 및 자녀양육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2)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기회 : 자아정체감 혼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다. 상담사의 눈을 통해 또는 질문을 받으며 미처 몰랐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혹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아는 것은 큰 전환의 기회가 된다. 30 대 중반의 한 청년은 늘 남을 신경쓰며 살았던 모습조차도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자기보호가 되지는 못했음을 깨닫기도 했다.

3) 마음을 나누고 표현을 배우는 장 : 깊은 대화의 갈증으로 가득한 청년들이 상담장면에서 상담사의 전문적 질문을 받으며 안전하게, 평가받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고 감정이 해소된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자신감이 없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사에게 표현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가족과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배우게도 되었다.

4) 수용받는 관계 경험 : 수용 받아본 사람이 자기를 수용하고 남도 수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이성을 만나도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서 수용되는 경험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체성 혼란 및 낮은 자존감과 함께 우울, 불안,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의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사로부터 받는 관계 경험이 삶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것을 본다. 한 청년은 늘 싸가지없고 못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는 낙인 효과를 부르는데 '그럼 그 말대로 행동해야지'하며 살게 된 것이다. 상담을 통해 나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으며 '나도 착한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신을 다시 보게 되니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했다. 이 수용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위드의 상담자들은 다른 말로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청년세대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부담감으로 시작했다. '세대차가 느껴졌나' 묻는다면 마음으로 들어가니 세대차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답이다. 결국 사람은 어떤 나이와 세대이건 사랑과 공감으로 연결이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겉으로 봐서는 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보면 관계를 잘하고 싶고 고민하는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비슷하다. 표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이런 변화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상담사들 모두가 상담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 저희를 변화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청년세대의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는 시대에 청년을 품는 상담사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농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교회 청년부와 청년센터WAY가 함께하는 청년사역

높은뜻광성교회 청년마을 이재호 목사

I. 서설

○ 지난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할 때 주요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생각 비율'이 40%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30대 여성 중 33%, 20대 여성은 23%가 우울 위험군으로 조사되어 전 세대에서 가장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2주간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자살 생각률의 경우 30대 남성이 22.4%로 전체 평균 13.6%보다 앞도적으로 높아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내몰리고,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II. 교회 청년부서와 심리상담

1. 심리상담의 필요

○ 한국 사회처럼 10대에 대학입시 20대에 취업 30대에 결혼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당위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버거운 지경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더해져 정서적·관계적 탈출구마저 심각한 제한을 받다보니 청년들의 마음이 고립되고 위축되는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심리불안과 정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은 교회 밖의 청년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학업, 취업, 재정, 결혼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의무를 하나 더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심리치료의 비전문가인 목회자

○ 그러다보니 교회안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심리 불안에 기반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서로 간에 발생되기도 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해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목회자는 신학과 신앙의 전문가이지만 심리치료 및 상담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 원인과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상담을 요청해오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의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는 '우울'과 '불안' '왜곡된 사고'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자신의 전문분야인 신앙의 문제로 치환하여 손쉽고 위험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기도가 부족해서"라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라고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경우 목회자의 경청과 공감만으로도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다시 마음의 힘을 얻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기가 걸리고 팔이 부러지면 기도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듯이,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적인 돌봄과 병행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절실합니다.

3.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

○ 그런 차원에서 기윤실 청년센터WAY의 심리상담사역은 한국교회를 위해 특히나 청년 공동체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공동체에서 청년센터WAY의 심리상담을 받은 케이스가 15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년들이 소개해서 상담을 받게 된 케이스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은 것만 봐도 청년센터WAY의 심리상담 지원 사역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밖의 기관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심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이 외부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담자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음이 교회 안 구성원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없으니 내담자 입장에서는 심리 상담의 문턱이 낮아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밀한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담치료의 기대효과도 자연히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외부 전문 상담가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기에 여러 상황에서 마주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목회자와는 달리 '직면'이나 '해석' 등의 적극적인 상담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한 없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상담 치료를 통해 지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자신의 심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겪는 관계나 일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목회자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의존도 역시 줄일 수 있어 공동체 전체의 건전한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 실례로 작년에 기윤실 청년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자신의 경우 이렇다할 취미도 없고,

자신의 감정이나 취향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다보니, 삶의 적극성과 만족감이 낮아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제안해준 감정 일기 트레이닝과 내면의 욕구 찾기 코칭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이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모쪼록 금번 높은뜻광성교회 청년마을과 기윤실 청년센터WAY와의 협력모델이 많은 조국 교회 청년 공동체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정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 시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회복의 역사가 막힘없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